

주요기사 해설

2007-08-30

● 국민은행, 금융지주회사 전환기로 밝혀

김기홍 국민은행 수석부행장은 29일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초청세미나에서 현재 이사회에서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이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내법상 지주회사가 인수, 합병과 고객정보교류 등 복합금융서비스에 이점이 많이 때문이다.

지주회사의 조직구도는 은행이 지주사 아래로 들어가고 은행이 보유한 KB부동산신탁, KV창업투자, KB신용정보, KB데이터시스템, KB생명보험, KB자산운용, KB선물 등 7개 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바뀌게 된다. 한편, 국민은행은 뉴욕증시에도 상장되어 있어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주사 실제 출범은 내년 말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KB생명 지분 49.0%를 보유한 ING를 제외하고는 계열사에 다른 지분이 거의 없어 주주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 우리은행, 메릴린치와 ‘합작PB’ 검토

우리은행이 프라이빗뱅킹분야 세계 1위인 메릴린치와 PB전문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합작 방식은 우리은행과 메릴린치가 50대 50으로 공동 출자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메릴린치가 합작회사 설립에 성공하면 우리은행은 메릴린치의 선진 자산관리 노하우 전수는 물론 홍콩 등 아시아 10개국을 포함해 전세계 각국에 뻗어 있는 메릴린치 영업망을 활용, 국내외 시장을 대상으로 펀드, 보험 등 기존 투자상품에서부터 각종 파생상품, 헤지펀드 금융 상품 및 대안투자에 이르기까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PB시장에 변혁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